

漢陽大 中蘇研究所

柳 世 熙

(漢陽大 政治外交學科)

1. 研究所의 設立 背景과 發展過程

금년으로 창설 15주년을 맞이한 中蘇研究所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중소 관계 연구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중심 연구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본 연구소의 모체인 中國問題研究所가 창설되던 1974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내의 연구 기반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으며,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금기시 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냉전 구조가 남·북 분단 및 한국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가장 확고한 형태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될수록 그들을 주요 후원자로 삼은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긴장의 도를 더해 갔다.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하에서 일부 선구적인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자료 수집조차 무수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를 두고 어느 연구자는 과거를 회고하며 그것은 형극의 길이었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70년대 초 미·중, 중·

일 간의 관계 개선으로 상징되는 국제 관계의 해빙 분위기와 이러한 주변 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7·4 남북 공동 선언, 6·23 선언 등의 일련의 사태는 냉전 체제가 절대적으로 확고한 체제는 아님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의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는 정책 입안자는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절박한 과제였다.

이같은 맥락하에서 우리의 공산권 연구는 이 시대와 우리 민족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아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회주의권의 중주국이라 할 중국과 소련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그들 국가의 각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사회 일반의 공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초의 제공은 물론 정책 수립의 활용 근거로서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본 중소연구소는 그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코자 한양대에 부설된 학술 연구 기관이다. 본 연구소는 1974년에 중국문제연구소, 1977년에는 蘇聯問題研究所를 각각 설립한 후, 1981년 5월에 이들을 발전적으로 해체·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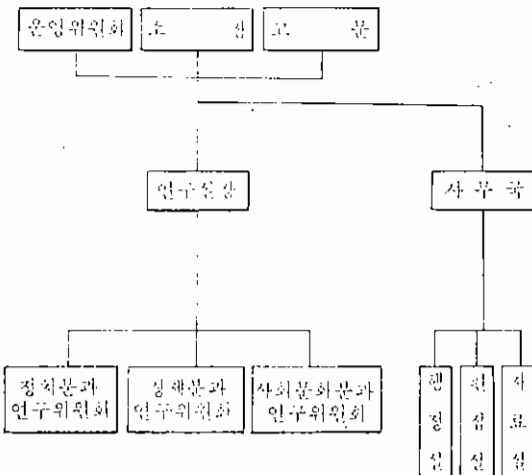
2. 性格, 組織 및 業務 概觀

본 연구소는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및 문화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과 국가 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공산권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연구 논문집 및 자료집을 출판·배포한다. 아울러 연구 발표회 등 크고 작은 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내·외 연구 기관 및 대학과 인적·물적 학술 교류를 시행하며, 이외에는 정책 결정 기관을 포함한 사회 일반의 공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병행한다.

본 연구소의 조직은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및 각 분과별 연구위원회로 구성되며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고문을 두고 있다(〈표 1〉 참조).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및 교내 주요 보직 교수로 구성되며 본 연구소의 연간 사업 계획을 인준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사한다. 연구분과위원회는 정치분과 연구위원회, 경제분과 연구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정치분과 연구위원회는 교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에서 중국과 소련의 정치, 외교, 군사, 행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다대한 연구 성과를 거둔 중견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분과 연구위원회는 본교

〈표 1〉 기구표



의 상경대학 교수들 가운데 중국과 소련의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소의 경제 구조 및 경제 정책 등을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북방 진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회문화분과 연구위원회는 교내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철학과, 사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들로 구성되며 중국과 소련의 역사, 철학, 사회, 문예, 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사무국 산하에는 행정실, 편집실, 자료실이 있다. 행정실은 본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특히 세미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며 일반 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실은 본 연구소의 모든 출판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가운데서도 본 연구소의 대표적 정기 간행물인 「中蘇研究」지의 원고 수집부터 책 출간까지의 제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끝으로 자료실은 중국과 소련에서 생산되는 제1차 자료는 물론이고 그밖에 국내·외에서 출판되는 중소 관련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자료들 가운데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文件들을 선정, 국역하여 「中蘇研究」지 자료편에 게재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수요가 높다.

3. 主要 研究活動 實績

본 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연구 활동과 출판 활동 및 국제 교류 활동이 그것이다.

1) 研究活動

(1) 정기 연구 발표회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중국과 소련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이 연구 발표회는 지난 5월 제 43차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회에서는 중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기초 연구는 물론 최근의 정책적 변화까지 다뤄지고 있으며, 참석자의 범위는 내·외의 학술 단체, 연구 기관, 유관 부처 등의 연구자들이 주요 대상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

석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흑룡강성 흑룡강대학 경제학과 교수 3명이 '중국 경제 개혁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를 갖고 정기 연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2) 특별 초청 발표회

수시로 외국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초청 발표회는 세미나 및 강연회 성격을 띠며 중국과 소련을 포함하여 공산권 전반에 관련된 시의성 있는 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소련방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소속 연구진 3명이 '아·태 지역에서의 한국과 소련'을,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의 김주철 교수가 '북한의 도시 계획 현황'을 주제로 각각 제 32차 및 제 33차 초청 발표회를 가졌다.

(3) 국제 학술 회의

본 연구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초의 것은 부정기적인 것으로 'The Roles of Political Leade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Korea and China'라는 주제하에 1982년 12월 14~15일간 5개국의 저명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두번째 이후의 것은 정기적인 것으로 1988년 9월 소련방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와 학술 교류에 관한 합의 각서를 교환한 이래 매년 교대로 회의의 장소를 바꿔가며 개최하고 있다. 제 1차 한·소 국제 학술 회의는 1988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소련의 대한 정책과 한·소 경제 교류의 전망(Soviet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r and the Prospec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viet Un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 2차 한·소 국제 학술 회의는 1989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소련 모스크바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 협력 그리고 안보(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Far East)'라는 주제로 본 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5명과 소련 학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소 국제 학술 회의는 양국간에 최초의 본격적인 학술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4) 연구 좌담회

내한한 외국 학자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

련 연구위원과 연구원이 참석하여 갖는 부정기적 학술 회의로서 격식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 주제하에 자유로운 본격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비인대학의 Fabigan 교수가 내방하여 '북한의 주체 철학의 기원과 변형'이란 주제하에 좌담회가 열렸다.

(5) 공동 연구 활동

문교부의 공산권 연구 지원금을 기금으로 장기적인 연구 계획하에 진행되는 이 연구 프로그램은 현재 중국과 소련 비교 연구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가 완결된 것으로는 중·소의 엘리트, 경제 체제, 동아시아 정책, 교육 제도 비교 연구로서 정치·외교 분야가 8편, 경제 분야가 8편, 군사·안보 분야가 10편, 사회·문화 분야가 8편 등 총 3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6) 월례 보고회

본 연구소는 상임 연구원들이 중국과 소련 및 구미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과 기타 최신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월례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되는 이 보고회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최신 동향을 계속 추적, 집중 분석하며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관심 있는 내·외의 교수, 전문가, 관계·제계의 실무자 및 본 연구소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이끌어 나가고 있다.

2) 出版活動

(1) 정기 간행물

본 연구소는 중소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中蘇研究」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975년 12월에 창간된 「中國問題」와 1979년에 창간된 「蘇聯研究」를 1980년 6월에 통합하여 현 「中蘇研究」가 되었다. 1982년 봄호(제 6권 제 1호)부터는 반년간에서 계간지로 발행 호수를 늘렸다.

본 연구지는 1회 평균 약 7편의 논문과 자료를 포함하여 300면 가량으로 1,600부 정도가 발행되어 국내·외의 정책 기관, 대학, 도서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공산권에 130부, 기타 국가에 438부 등 주요 40여 개 국

가에 발송되고 있다. 현재 제 13 권 제 1 호(통권 41 호)가 발행되었으며, 국내·외의 중소 전문가 및 학자들의 중소 관련 논문과 중소의 주요 자료가 번역되어 게재되고 있다. 통권 39 호를 기준하여 볼 때 정치·외교 부문 153 편, 경제 부문 38 편, 군사·안보 13 편, 사회·문화 17 편, 역사·철학 23 편, 법 8 편, 기타 19 편 등 총 271 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중국과 소련에 관한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소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한·중국 간에 교역, 직접 투자, 자본 거래 및 기술 이전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유기적 경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정부 기관을 비롯한 유관 경제 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중국 시장 정보에 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들 기관에 중국 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에 「中國市場情報」를 창간하였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 간행물은 '89년 4월 현재 통권 14호 및 특별 기획자료 「中國의 金融制度」(1988년 11월)가 발행되었다. 본 「中國市場情報」지에서는 교역 및 합작 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실무 지침 자료, 중국 경제의 동향 분석, 경제 제도 및 법령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유관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2) 단행본

본 연구소에서는 중국과 소련에 관해 그동안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Yoo Se Hee(ed.), *Political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 Korea and China*, 한양대 중소연구소, 1983.

유세희 편, 「오늘의 中國大陸」, 한길사, 1984.

안석교 편,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 비봉출판사, 1986.

Yoo Se Hee(ed.), *Soviet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and the Prospec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Soviet Union*, 한양대 중소연구소, 1989.

본 연구소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주요 문건을 시기별로 묶어 자료집을 근간에 발행할 계획이

며, 그밖에도 몇 가지 단행본 출판 계획을 갖고 있다.

3) 國際交流活動

본 연구소는 중국과 소련의 주요 연구 기관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어 인적·물적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기관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련과는 소련방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와 활발한 학술 교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는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후룡강대학 경제연구소, 요령성 사회과학원 일본조선연구소, 천진 사회과학원, 북경사회과학원, 상해사회과학원 등과 인적·물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본 연구소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덴마크, 서독, 핀란드 등 12 개국에 걸친 해외 주요 연구 기관 29 개소와 자료 교환 및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국제 교류 활동은 본 연구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研究所의 運營 現況

1) 資料 現況

본 연구소는 소련·중국·북한 등지의 공산권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도서 및 관계 자료

<표 2> 자료 보유 현황(1989년 7월 현재)

(1) 정기 간행물 중 208 종

a) 외국 정기 간행물 155 종

| 분 | 류 | 수 | 비 고 |
|----------|---|------|---|
| 신 | 문 | 18종 | 중문 5종, 노문 4종, 일문 2종, 영문 4종, 불문 1종, 북한 2종 |
| 잡지 및 연구지 | | 137종 | 영문 57종, 일문 14종, 중문 52종, 노문 11종, 불문 1종, 독문 1종, 북한 1종 |

b) 국내 정기 간행물 53 종

(2) 일반 도서 8,072권(동서 : 5,013권, 양서 : 3,059권)

를 계속 수집해 오고 있으며, 미국·일본·홍콩·대만·서독·영국·프랑스 등지의 서방 국가에서 발행되는 공산권 관계 자료 및 간행물도 구입하여 분류·소장하고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

본 연구소의 자르는 본교 재학생, 교수, 연구소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수 자료의 경우 특수 자료 취급 인가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제한 구역 내에서의 열람이 허용되고 있다.

2) 會員制度

본 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국과 소련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관계 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1983년 4월부터 연구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 자격은 학계나 사회 기관에서의 연구 종사자와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의 연구생으로 한정하며, 일반 대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의 추천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회원은 본 연구소의 소장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연구 프로그램에 초청된다. 아울러 계간지 「中蘇研究」를 포함하여 본 연구소의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우송받는다. 1989년 7월 현재 총 회원 수는 330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인 회원이 303명, 기관 회원은 27개소에 달하고 있다.

5. 評價 및 展望

1974년에 중국문제연구소, 1977년에 소련문제연구소를 각각 설립하여 1981년 5월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현 중소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본 연구소는 중국과 소련에 관한 연구 업적면에서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활약해 오고 있다.

본 연구소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고 부분적으로 금기시되던 시기부터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구체적으로는 「中蘇研究」라는 본격적인 학술 전문지를 계간으로 발행해 와 이미 통권 41권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중국·소련 문제에 관한 각종 학술 회의 및 공동 연구 활동(예: 정기 연구 발표회, 특별 초청 발표회, 중소의 비교 연구 시리즈, 연

구 좌담회, 국제 학술 회의 개최, 월례 보고회)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을 본 연구소의 주요 공헌 내용으로 들 수 있다. 특히 1988년 9월 서울과 1989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개최된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와 본 연구소 공동 주최의 한·소 국제 학술 회의는 본 연구소의 연구 업적에 대한 좋은 실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소는 중국과 소련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연구진을 활용하여 「中蘇研究」지 자료편에 번역·계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연구의 기초 자료들을 지난 수년 동안 국내 학계 등 관련 분야에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소의 자료실에 수집·소장되어 있는 중소 연구 관련 자료들은 그 양과 질 면에서 내·외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만의 독특한 연구 활동으로서 월례 보고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산권 및 구미 등의 최신 자료를 종합·분석함으로써 중소의 최신 동향을 규명하는 한편 양질의 분석 자료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연구원의 연구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실있는 탄탄한 연구 역량 축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소는 단행본 발행 수에 있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후술되는 문제점에서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가 안고 있는 재정 문제에서 연유하고 있다. 본 연구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재정 문제, 인력 수급 문제, 자료 획득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각종 학술 회의 및 공동 연구 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연구의 자율성 및 기존 연구와의 연관성 유지에 곤란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는 전문 연구 인력을 장기적으로 연구소에 근무시키지 못하는 연구원 생활 보장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여 구체적으로는 중국어와 소련어 해독자의 관련 분야와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며, 인문과학 등의 기초 분야 연구자가 드물어 종합적인 연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전문 인력 양성을 가로막아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자료 획득상의 문제점으로 국내·외의 중소 관련 도서 구입비의 부족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자료 구입 확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중국과 소련이 비수교국이라는 점 때문에 자료 획득의 지연, 최신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 자료 구득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의 재정적 영세성에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계, 특히 공산권 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사회의 지원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 중반 본격화된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대소·대중 관계는 공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과 인

식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국내의 중소 연구 수준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중소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은 물론 전문 인력 배양에도 일조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소는 중국과 소련과의 직접적인 학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학술 회의는 물론 교수 및 연구를 위한 상호 연구자 초빙 및 장기간 체류가 포함될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대시켜 아·태 지역, 특히 동북아 평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된다.

중소 관계 연구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중심적인 연구소이며, 국내의 중소 연구를 선도해 왔다고 자임하는 본 연구소는 앞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